

부활절 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2ND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4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일 31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6 번 시편 (Psalm) 28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Exodus) 20:18-26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이 임하심은” (God Has Com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38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아” (통일 49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침묵했고,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 없이 흔들리며 무기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비슷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그릇된 욕망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 68, 계 24, 계 3: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역개정 **출 20:20**)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NASV **Exodus 20:2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6 (주일)	4/17 (월)	4/18 (화)	4/19 (수)	4/20 (목)	4/21 (금)	4/22 (토)
	레20	레21	레22	레23	레24	레25	레26
본문	시25	시26,27	시28,29	시30	시31	시32	시33
	전3	전4	전5	전6	전7	전8	전9
	딤후5	딤후6	딤후1	딤후2	딤후3	딤후4	딤후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19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1) – “성취” (마16:16)
토요 새벽기도회(4/22토 오전6:30)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나” (시119:1-8)

지난 주일(4/9) 말씀 – 부활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6-9)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 짓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도 남을 만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직접 제시해 주셨는데, 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17:31)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5장은 열방과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사야 13장부터 27장 안에 들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1)죽음(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2)또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이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며,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수치를 천하에서 다 제하시겠다는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메/모